



아름다움, 후스리, 실례, 관학, 건축, 언어

《돌과 바람의 소리》낸 재일건축가 이타미 준

한국인이지만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잘 알려진 사람이 있다. 한국 이름 유동룡인 재일교포 2세 이타미 준(66)이 그렇다. 1937년 도쿄에서 태어난 이타미 준은 2003년 여름 세계적인 아시아 박물관인 프랑스 국립 기메동양미술관의 초대를 받아 '이타미 준, 일본의 한국 건축가'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당시 기메동양미술관 측은 그에 대해 '현대미술과 건축을 아우르는 작가, 국적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건축세계를 지닌 건축가'라는 찬사를 보냈다.

'일본의 한국 건축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비록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의 정신적 뿌리는 한국에 두고 있다. 일례로 자신의 아틀리에인 <먹의 집>은 조선 선비들의 사랑방 개념을 도입한 작품이다.

"이 아틀리에에는 나의 사랑채라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사슴' 와 '랑廊'의 문체에 천착하고 있는데, 전자는 방을 뜻하며 의미 있는 공간이다. 후자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기보다 그러한 곳으로 데려다주기 위한 공간이다. 나는 이 <먹의

집>에서 돌의 일체화를 꾀했고, 빛과 어둠 속에 함께 있음을 막연하게나마 시도해 보았다."(《돌과 바람의 소리》중 <먹의 집> 시말기, 163쪽)

국내에서도 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포도호텔, 온양미술관, 각인의 탑 등이 그곳이다. 특히 2002년에 설계한 포도호텔은 제주의 오름과 전통 초가의 모양새가 잘 어우러진 건물로 제주의 명물이 되었다. 작년 11월에 재개관한 서울 인사동 학교재 화랑이 이타미 준의 작품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건축가 이타미 준의 예술이 있는 공간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돌과 바람의 소리》는 이타미 준의 인간적인 모습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을 소개하

고 있는 책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이타미준건축연구소를 세우고 자신의 건축세계를 실천하고 있는 이타미 준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신는다. 번역은 이타미준건축연구소 강준구 대리가 수고해 줬다.

1997년 30년간의 건축세계를 담은 건축작품집을 출간한 이후 한국에선 두 번째로 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책을 내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책은 1973년 3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일본의 건축 잡지인 <신건축>과 <실내> 등에 기고한 글을 손질한 것이다. 새로 몇 편의 글을 덧붙여 정리한 것도 있다. 일본의 독자를 대상으로 했기보다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본 건 없다. 다만 내가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듣기는 하지만 말하는 것은 서툴다. 일본말의 미묘한 느낌을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느꼈다.

책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특히 독자들이 주의 깊게 읽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본에서 연재할 때 주로 나를 매료시키는 것들을 소개했다. 조선의 민화를 비롯해 도자기, 벼루, 장과 상, 불상 등 한국의 골동품들이 그 중 한 부분이다. 결국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던지는 화두는 내가 느낀 아름다움, 혼 그리고 설렘에 관한 것이다.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한 편이라고 들었다. 힘든 건축의 길로 접어든 계기는 무엇인가? 몸이 약했던 것은 내가 기억하기도 전의 일이다. 소학교(초등학교) 시절부터는 오히려 건강한 편이었다. 대학 시절에는 시간이 있으면 간다의 유명한 고서점에 들러 미술서적이든가 건축 작품집에 흠뻑 빠지곤 했다. 사실 젊었을 때는 건축보다는 그림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화가가 되려고 했다. 그러다 장래를 생각해서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무, 돌,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인들이 학교재 화랑 건물을 접할 기회가 많을 텐데 학교재를 통해 자신의 건축세계를 설명해 달라. 수묵화가 문봉선 씨의 소개로 학교재 우친구 대표를 처음 만났다. 과묵하고 온화하면서도 강한 정신을 지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분이였다. 그 인연을 계기로 학교재 건물을 작업하게 되었다.


꽃꽂이를 한 꽃처럼 인사동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자연발생적인 복합과 조화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에서 대립과 불협화음이 엿보인다. 학교재 화랑은 인사동이라는 환경과의 대화 매개체로 나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장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표현한 작품이다.

일본과 한국 두 공간에서 건축 활동을 하고 있다. 양쪽을 오가다보면 느끼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건축가로서 어떤 차이를 느끼는지 궁금하다. 일본에서 태어난 내가 일본 건축에서 배운 게 있다면 자연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건축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근대 건축에서 무為의 느낌과 정신적인 깊이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은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비롯하

여, 자연과 문화의 중간 지점, 즉 중용을 철학으로 하는 사상, '땃'이라는 말의 정신적인 깊이와 다양한 의미, 도자기에서 볼 수 있는 넉넉한 선과 면, 부정형의 성질, 조선 자기의 무구함과 온기 등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일본에서도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도 건축가로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험한(?) 일인 데다가 보통의 끈기와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젊은 건축학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재능을 가졌다. 하지만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건축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심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나의 경우, 35살까지는 무모할 정도로 잠을 안 자며 열심히 노력했고, 그 후에는 여러 곳을 여행하며 좋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건축을 하려면 스스로 고독할 수 있을 것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의 혼에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작년은 프랑스 국립 기예동양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여는 등 자신의 건축세계를 평가받은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본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건축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라거나 한국이라는 경계를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살고 세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는 것이 내 삶의 태도다.

출판과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내 작품집이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새로이 에세이집 2권을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mail 인터뷰 신동섭 기자 · 사진제공 이타미준건축연구소



《돌과 바람의 소리》

이타미 준 지음 | 김난주 옮김 | 학교재 | 256쪽 | 값 13,000원